

상층부 전문 구조대원 투입...실종자 찾기 속도낸다

화정아이파크 24시간 수색·구조 체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주째인 24일, 상층부에 매몰됐을 가능성이 높은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층부 실종자 구조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타워크레인 해체가 사실상 종료되고, 이날부터 24시간 구조·수색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5명의 실종자 찾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사고수습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8분께 인명 구조견 5마리를 투입, 22층 이상 상층부 수색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온 해외 재난현장 구조 경험이 있는 전문 구조대원 17명들도 수색작업에 들어갔다.

현대산업개발측은 상층부의 수색·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콘크리트 적치물의 제거와 상층부 붕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간에는 작업자 15명을, 야간에는 14명을 교대로 투입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인명구조견이 이상 반응을 보여 실종자가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22층에는 콘크리

해외 재난현장 경험 있는 17명 1t 굴착기 배치해 잔해물 제거 작업자 29명 주·야 교대 투입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전 조치도

트 잔해물 제거를 위해 1t 굴착기가 현장에 배치됐다. 유압절단기 등을 이용해 콘크리트와 철근 잔해물도 본격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무너질 위험이 있던 타워 크레인도 RCS가 부착된 해체 작업은 지난 23일로 사실상 종료됐다. 그동안 계속 중이던 외벽과 타워크레인에 대한 계속은 계속 진행하면서 만일의 전도에 대비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날 붕괴된 아파트 남측 부분에 구조·수색 작업간에 발생할 낙하물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덤프8대와 굴삭기 3대 등을 이용해 모래를 쌓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낙하물이 떨어져 충격으로 추가 붕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정화 작업의 일환이라는 게 현대산업개발측 설명이다.

또 건물 내부에서도 추가 작업이 진행 중이다. 콘

크리트 잔해물이 적치돼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는 구멍을 뚫어 내시경 등을 넣어 수색을 하는 일명 '코어링'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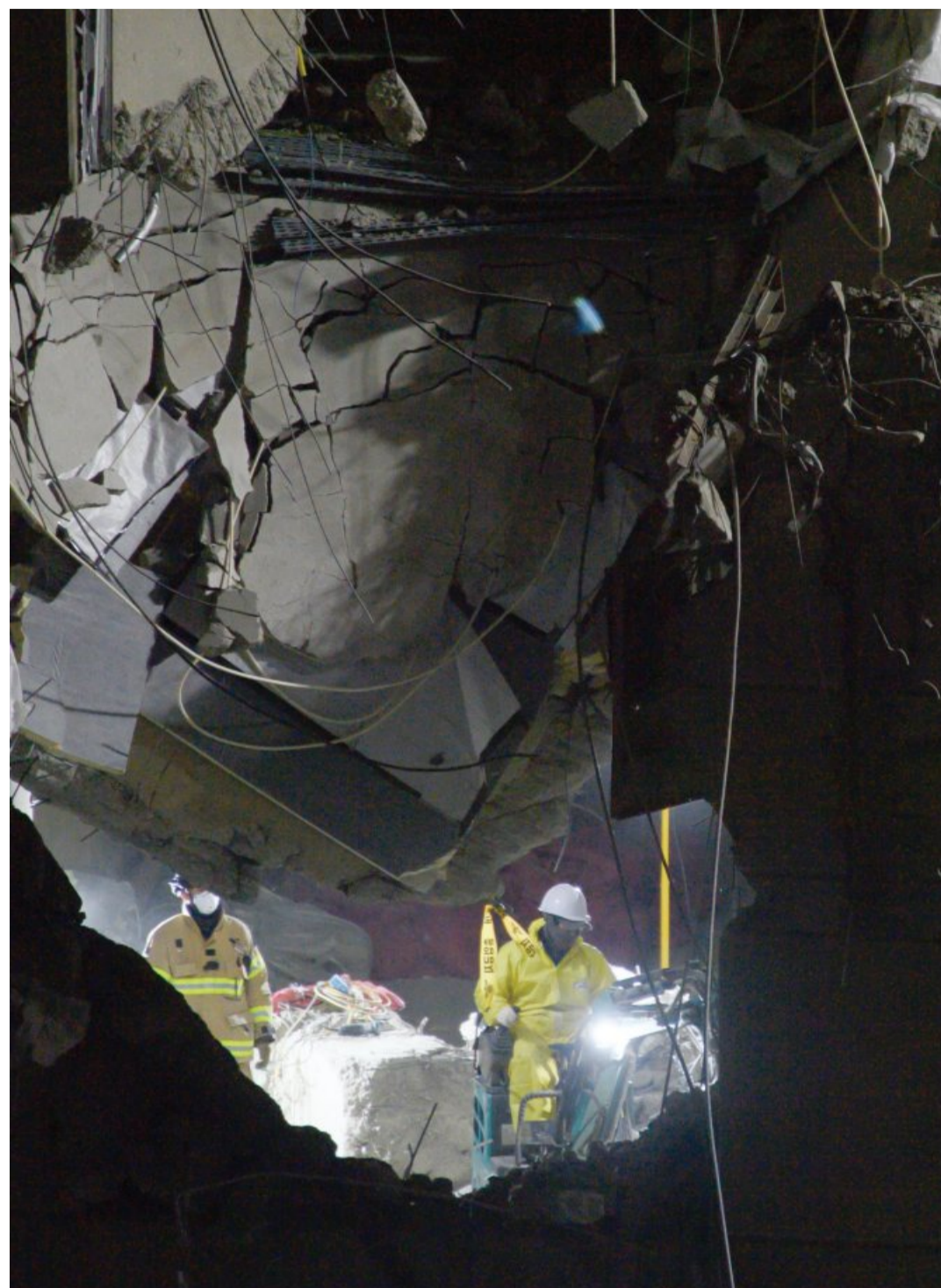
더불어 상층부 내부에 잭서포터(지지대)를 설치하고 있다. 지난 23일까지 19층부터 21층까지 1호 세대쪽에 잭서포터 설치를 완료했고, 추가로 38층 등에도 지지대 설치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구조·수색 작업의 안전 차원에서 붕괴된 건물 내부에 안전구역 구분을 짓기 위한 안전 가드레일도 설치 중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또 '붕괴사고 피해자가족협의회' 가족들과 회의를 열고, 가족들의 요구 사항 일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구조를 위한 잔해물 제거 작업과 함께 소방당국의 인명 수색 작업도 24시간 병행되고 있다.

이날 수색 야간 작업도 22층의 적치물 제거 작업과 함께 진행중이지만 오후 6시경까지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수색·구조를 24시간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하루빨리 구조를 바라는 가족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면서 "특히 타워크레인 등의 위험 요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안전적으로 야간 수색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2주째이자 수색·구조작업을 24시간 지속 체계로 전환된 24일 오후 소방 수색대와 작업자가 22층 붕괴 지역에서 잔해 제거 및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순사건 진상규명 '입 열리다'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나흘간 순천 15건 등 25건 접수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첫날인 지난 21일 이후 나흘 동안 모두 25건이 접수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진상규명 신고 1건과 희생자·유족 신고 24건 등으로 지역별로는 여수 8건(희생자·유족 8), 순천 15건(희생자·유족 15), 고흥 2건(진상규명 1과 희생자·유족 1) 등이다.

전남도는 피해 사실 입증자료·보증서 등 신고·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각 지역 유족회에서 단체 신고를 계획하고 있

어, 설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인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도는 접수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를 취합해 사실조사를 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심사 후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실조사를 위해 각 시군에 사실조사단을 구성, 도·시군 담당 공무원과 사실조사 요원 대상 기본·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사실조사단은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과 사실조사 요원으로 구성,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에 대

한 상담과 사실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도·시군 담당 공무원과 사실조사 요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20시간 이상 진행한다.

사실조사 요령·면담·녹취 기술 등을 교육해 조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희생자·유족이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고·접수 홍보도 추진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선정을 위해 도민의 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며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해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기독병원, 코로나 '중증·준중증환자' 병상 개소

'서6A병동' 리모델링

광주기독병원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에 따라 24일 '중증·준중증환자'를 위한 전담치료병상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소된 전담치료병상은 기존의 '서6A병동(6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코로나19 중증환자 6개 병상과 준중증환자 3개 병상이다.

이들 병상에는 음압시설과 중증환자 치료에 최적화된 각종 의료장비 등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완비했다.

이날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개소식에는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김병내 남구청장, 이달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박은영 남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광주기독병원이 코로나19 중증·준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지난 117년간 수행해온 공공의료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중증환자 치료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모든 의료진이 힘을 모아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

광주 서구 '효드림 수당' 접수

광주 서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으로 '효드림 수당'을 접수받는다.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효드림 수당'은 전액 구비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세대당 연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효도대상자(어르신)의 만 8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신분증과 효도자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실제 거주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짝수달 20일마다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충장축제, 안전축제 '우수 지자체' 장관상

광주 동구의 '제18회 추석의 충장축제'가 행정안전부 주관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안전축제 개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 평가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동구를 비롯해 서울 송파구, 부산 동구, 대구 중구, 경기도 김포시, 전북 전주시 등 전국 18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지자체 가운데 광주 동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뽑혔으

며, 나머지 17개 지자체는 공무원 개인 표창을 받았다.

이는 광주 동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 만에 개최한 충장축제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혼합분산형' 축제로 개최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모범축제'의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19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충장축제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 만들기 위해 더욱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국민은행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쿠폰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쿠폰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할인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